

근대의 우타카이하지메(歌会始)와 칙제(勅題) 문예*

— 일제강점기 일본인 발행 신문을 중심으로 —

이 윤 지**

survivan@korea.ac.kr

〈 目 次 〉

- | | |
|----------------------------|------------------------------|
| 1. 들어가며 | 4. 한일병합 전후의 초기 일본어 신문과 칙제 문예 |
| 2. 오우타도코로 파(御歌所派)와 우타카이하지메 | 5. 우타카이하지메와 식민지 조선인의 칙제 문예 |
| 3. 칙제 및 어제와 영진가-신문의 역할 | 6. 맺음말을 대신하여 |

Key word : 우타카이하지메(Imperial New Year's Poetry Reading), 칙제(the Theme for *Utakai Hajime*), 오우타도코로(*Outadokoro*), 구파 와카(the old-style *Waka*), 신문 문예란(newspaper's literary column)

1. 들어가며

2019년 5월 15일, 일본 궁내청(宮内庁)은 2020년 우타카이하지메(歌会始)의 주제(お題)¹⁾가 「望」로 결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익년의 주제는 우타카이하지메 당일에 발표하는 것이 통례이나, 생전 퇴위가 이루어진 금년의 경우 새로운 천황의 즉위 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된 까닭에 5월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헤이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6907).

**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연구교수, 일본중세문화 전공

1) 과거와 달리 현재의 ‘お題’는 사실상 ‘주제’라기보다 노래에 「望」라는 문자 자체가 포함 되면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希望」, 「望郷」 등의 해당 문자가 포함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望(のぞ)む」와 같이 혼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세이(平成)의 마지막을 장식한 「光」와 더불어 새 시대의 막을 여는 첫 주제로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최초의 칙찬집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의 편찬으로부터 새해의 주요 황실 행사로 정착한 우타카이하지메에 이르기까지, 천황은 가도(歌道)의 중심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의 우타카이하지메²⁾는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에 있어 일본 문학의 상징인 와카(和歌)와 가인(歌人)의 대표로서의 천황을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교묘히 결합시켜 ‘만들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타카이하지메 운영 및 이를 주도한 오우타도코로(御歌所)의 설치와 관련된 가인들의 다수가 국학자(国学者)였다는 사실은 이 행사가 결코 단순한 궁중 행사의 계승이 아니라 국가 신도(國家神道)에 기반한 천황 중심적 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明治政府)는 우타카이하지메의 개최 및 어제(御製)를 공표하고 일반인의 영진(詠進)을 허가하는 등 이 궁중 의례에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히 의례의 상제와 어제 혹은 선가(選歌) 등의 공개에 있어 근대적 미디어로 새로이 등장한 ‘신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타카이하지메의 주제에 해당하는 칙제(勅題)³⁾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직접적 영진 외에도 단가(短歌)를 비롯한 한시, 하이쿠(俳句) 등 시작(詩作)의 제목이나 회화, 사진 등 예술 활동의 주제가 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국민적 관심을 장려하고 반영한 매체가 다름 아닌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 등의 미디어였다. 본고에서는 근대에 들어 새로이 정립된 우타카이하지메의 위상 및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 소위 내지(内地)를 떠나 활동

- 2) ‘우타카이하지메(歌會始)’라는 명칭은 1928년 이후 개칭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우타카이하지메(歌御會始)’ 혹은 ‘고카이하지메(御會始)’라 불렸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인용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우타카이하지메’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3) 전후(戰後)인 1947년 이후로는 ‘勅題’가 아닌 ‘お題’가 공식 명칭이 되었다. 또한 그 주제는 이전의 「春風來海上」, 「春來日暖」 등의 난해한 한문식 표현에 비하여 「あけぼの」, 「春山」 등 평이한 단어로 변화했다. 현재는 「人」, 「野」 등의 정해진 문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의 자유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하던 일본인들의 칙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에 주목하여, 당시 한반도에서 발간된 일본인 발행 신문을 대상으로 당시 칙제 문예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오우타도코로 파(御歌所派)와 우타카이하지메

황실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새해 첫 가회(歌會)를 지칭하는 우타카이하지메는 적어도 그 기원을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중기 이전으로 보고 있으며, 근대에 들어서의 첫 우타카이하지메는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즉위 이듬해에 해당하는 1869년(메이지 2년)에 실시되었다. 패전 직후인 1946년 폐지되기까지 천황과 황족의 와카 지도 및 우타카이하지메 관련 사무를 담당한 오우타도코로의 전신인 가도고요가카리(歌道御用掛)가 1871년(메이지 4년) 궁내성(宮内省)에 설치되었고, 후쿠바 요시시즈(福羽美静), 핫타 도모노리(八田知紀), 곤도 요시키(近藤芳樹), 다카사키 마사카제(高崎正風) 등의 국학자와 가인들이 발탁되어 활약했다. 이후 분가쿠고요가카리(文学御用掛), 지주쇼쿠오우타가카리(侍從職御歌掛) 등 수 차례의 변경을 거쳐 88년(메이지 21년) 오우타도코로로 독립하고 다카사키 마사카제가 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1869(明治2)	메이지 천황 즉위 후 최초의 우타카이하지메 실시
1871(明治4)	가도고요가카리(歌道御用掛) 설치
1874(明治7)	일반 국민 영진 허가
1879(明治12)	선가(選歌) 제도 실시
1882(明治15)	선가의 신문 발표 시작
1888(明治21)	오우타도코로(御歌所) 설치

오우타도코로를 중심으로 활동한 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우타도코로 파(御歌所派), 궁내성 파(宮内省派)로 불리며 메이지 초기 가단(歌壇)의 권위로 군림했다. 그러나 『고킨슈』 중시의 전통을 고수하며 니조 파(二条派), 게이엔 파(桂園派)의 흐름을 계승한 이들의 보수적, 관념적인 가풍은 메이지 30년을 전후로 근대 단카 혁신 운동(短歌革新運動)을 주도한 요사노 멧칸(与謝野鉄

幹),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등에 의하여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마사오카 시키는 1898년(메이지 31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신문 『일본(日本)』 지상에 서간 형식으로 연재한 평론 「가인에게 드리는 글(歌詠みに与ふる書)」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 바 있다.

田舎の者などは御歌所といへばえらい歌人の集り、御歌所長といへば天下第一の歌よみの様に考へ、従てその人の歌と聞けば、読まぬ内からはや善き者と定めをるなどありうちの事にて、生も昔はその仲間の一人に候ひき。今より追想すれば赤面するほどの事に候。御歌所とてえらい人が集まるはずもなく、御歌所長とて必ずしも第一流の人が坐るにもあらざるべく候。今日は歌よみなる者皆無の時なれど、それでも御歌所連より上手なる歌よみならば民間に可有之候。(하선 필자, 이하 동일)

일찍이 1894년(메이지 27년) 5월 『니로쿠신포(二六新報)』에 발표된 댓칸의 「망국의 소리(亡国の音)」와 더불어 오우타도코로 가단을 통렬하게 공박한 소위 ‘신파(新派)’의 주장은 근대 단카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우타도코로 파의 존재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밀려나 도태된 ‘구파(旧派)’로 규정되어 단카 연구 및 감상에 있어 도외시되어 왔다. 『와카문학대사전(和歌文学大事典)』의 ‘구파 와카(旧派和歌)’ 항목은 ‘전통적 유파에 의한 구습의 고수(古習墨守), 제영(題詠)을 중시하며 용어나 가조(歌調)에 제약이 있었다. 결국 신시대의 와카 혁신에 의하여 신파와 교체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숙명을 지게 되었고, 근대 단카의 확립과 더불어 그 가치를 잃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메이지 이후의 와카(단카)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구파 가단 및 오우타도코로의 존재에 대한 폄하의 시각과 더불어, 이들이 주도한 우타카이하지메의 문학사적 의의 및 그 정치적, 문화적 기능 또한 연구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유신 직후 가도고요가카리가 설치되고 1874년부터 우타카이하지메의 일반인 영진이 허용되는 등 당시의 ‘구파’ 가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들의 역할과 와카라는 장르의 가치에 대한 근대적 재정립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오우타도코로의 초대 소장이자 구파 가인의 핵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카사키 마사카제는 1876년 메이지 천황의 오우 순행(奥羽巡幸) 각처에서 봉헌된 민중의 시문을 모아 편찬한 『우모레기노하나(埋木廻花)』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발행 의도를 밝히고 있다.

はた歌奉りけむ人々はおのが心をして常に九重の雲上に侍らはしむるに等しければ、いか計か嬉しめかしみこみ奉らむ。さあらんには上下の情実互に通ひ親しまるゝ一端ともなりなんと、頓て其よし聞え上て許可を蒙り職務のいとまいとまにかくあつめ叙て二巻となし埋木の花と名づけて献りぬ。

천황의 순행⁴⁾은 국민들에게 새 시대의 탄생과 군주의 권위를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였음은 언급할 나위도 없다. 이에 수반하여 국민들이 시가를 헌상하는 행위가 상하, 즉 군주와 백성의 진심을 서로 통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한 다카사키는 ‘신년 우타고카이하지메(歌御会始)의 어제를 천하 일반에 포고하여 국민의 영진을 허가하시고 일일이 예람(飮覽)하시는 것조차 전에 없을 미겨(美拳)이거늘, 나아가 다수의 영진 중에서 우수한 가작 대여섯 수를 덴자(点者)⁵⁾로 하여금 선정하게 하사 어전에서 더불어 입도록 하심에 이르니 실로 가도를 장려하기 위한 성려(聖慮)가 더할 나위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칭송⁶⁾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들이 주도한 우타고카이하지메의 국민 참여 또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다.

4) 메이지 시대 천황의 지방 순행은 무려 97건에 달한다. 그 중 ①1872년 5월 23일-7월 12일의 긴키(近畿)·주고쿠(中国)·규슈(九州) 순행, ②1876년 6월 2일-7월 21일의 도호쿠(東北)·하코다테(函館) 순행, ③1878년 8월 30일-11월 9일의 호쿠리쿠(北陸)·도카이도(東海道) 순행, 1880년 6월 16일-7월 23일의 야마나시(山梨)·미에(三重)·교토(京都) 순행, ⑤1881년 7월 30일-10월 11일의 도호쿠(東北)·홋카이도(北海道) 순행, ⑥1885년 7월 26일-8월 12일의 산요도(山陽道) 순행을 6대 순행이라 부르며, 이들 대규모의 순행은 메이지 초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전통적으로 렌가(連歌)·하이카이(俳諧)·센류(川柳) 등의 고전 시가 분야에서 작품의 우열을 판별하고 평점을 내리는 사람을 의미하나, 본문에서는 우타고카이하지메의 선가 결재 담당자를 가리킨다.

6) 高崎正風述・遠山稲子編(1912) 『歌ものがたり』 東京社 p.79

3. 칙제 및 어제와 영진가-신문의 역할

1870년(메이지 3년) 화족(華族)과 칙임관(勅任官), 1872년(메이지 5년) 판임관(判任官)까지의 영진 허가에 이어 1874년(메이지 7년) 일반 국민의 영진이 가능해졌다고는 하나 당시까지는 사실상 신정부 관계자에 머물렀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반에 개방된 것은 선거 제도 시행 이후 선거가 신문에 발표되기에 이른 1882년 이후의 일이다.

당시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의 발행부수 2만 부에서 유추하면 초기의 영진은 일부의 지식인들에 한정된 것이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오우타도코로가 설치된 1888년 전후의 영진가는 1만 수에 이르렀고, 20년 후인 1908년 이후로는 3만 수를 상회했다. 황기(皇紀) 2600년에 해당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문화 진흥책을 대대적으로 장려한 1940년 전후로는 4만 수에 달하게 되며, 일본 국내는 물론 본토를 떠난 재외 국민, 파병 군인의 투고도 상당한 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는 『설국의 봄(雪国の春)』에서 다이쇼(大正) 15년, 즉 1926년 당시의 영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文学の權威はこういう落ち付いた社会において、今の人の推測以上に強大であった。それを經典呪文のごとくり返し吟誦していると、いつの間にか一々の句や言葉に、型とはいいいながらもきわめて豊富なる内容がついてまわることになり、したがって人の表現法の平凡な発明を無用にした。様式遵奉と模倣との必要は、たまたま国の中心から少しでも遠ざかって、山奥や海端に行つて住もうとする者に、ことに痛切に感じられた。それゆゑに都鄙雅俗というがごとき理由もない差別標準を、みずから進んで承認する者がますます多く、その結果として国民の趣味統一はやすやすと行われ、今でも新年の勅題には南北の果から、四万、五万の獻詠者を出すような、特殊の文学が一代を覆う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국민의 취미 통일’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우타카이하지메를 향한 거국적 참여를 가능케 한 원인 중 하나는 의례의 상제 및 당년의 칙제, 어제를 비롯한 황족의 노래와 선거가 관보를 비롯한 각 신문을 통하여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어제의 경우 일찍이 1872년부터 신문에 공개된 것을 확인⁷⁾할 수 있으며, 지방 순행과 마찬가지로 천황의 존재 및 어심(御心)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국민의 영진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했으며, 일반적으로 6, 7수에 불과한 선가에 포함될 희박한 가능성과 더불어 정식으로 영진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단카나 하이쿠, 한시 등을 창작하거나 사진, 그림 등의 주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칙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여 신문 및 잡지에는 신년을 전후하여 다수의 칙제 관련 문예물이 투고되었으며, 역으로 신문사나 잡지사 측에서 칙제를 주제로 삼아 신년 문예를 모집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4. 한일병합 전후의 초기 일본어 신문과 칙제 문예

본국을 떠나 한반도에서 거주 혹은 활동하던 일본인들도 칙제와 어제, 우타 카이하지메에 대하여 내지에서와 다름없는 관심을 가지고 ‘칙제 문예’에 참여했음을 당시 발행된 신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1905년 1월 15일에 창간한 『조선일보(朝鮮日報)』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1월 21일자 1면에 「출정 군인의 아회(出征軍人の雅懷)」라는 표제로 당년의 칙제 「新年山」를 노래한 단카가 실려 있다.

攻めとりしあだのとりでの山にしてはるかにあふぐ初日子のかげ

무너뜨리고 적군의 보루였던 산에 올라서

아득히 우러르는 새해 첫 해의 빛

작자 및 출처에 대해서는 ‘출정근위기병(出征近衛騎兵) 야하시 요시타네(矢橋良胤)⁸⁾ 씨가 당항(當港)의 가메다 야소하치(龜田八十八) 씨에게 보낸 서

7) 松澤俊二(2008) 『明治天皇「御製(ぎょせい)」のポリティクス』 『日本近代文学』79 日本近代文学学会 pp.60-61

8) 야하시 요시타네(矢橋良胤)는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의

신의 내용'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1907년 11월 3일 창간한 『경성신보(京城新報)』의 경우, 이듬해인 1908년 1월 1일 제44호 1면에 당년의 칙제인 「禎頭松」이라는 제목의 단가 6수가 작자 미상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하의 단가는 그 중 3수를 인용한 것이다.

住吉の松も靜かに聳ゆめり枝も鳴さぬ君が大御代
스미요시의 소나무도 고요히 뻗어 있구나
가지도 울지 않는 주군의 태평성대
神路山歳立つ毎にさかえ行く松は御國の姿なるらし
가미지야마 해가 흐를 때마다 무성해지는
소나무는 조국의 모습을 나타내리
うらうらと昇る初日の御光をとつ國人も仰ぐ嬉しさ
밝고 환하게 떠오르는 첫 해의 위대한 빛을
다른 나라 사람도 우러르는 감개여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5년과 헤이그 특사 건을 빌미로 한일신협약이 체결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1907년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느 노래나 신년의 정경이나 감회보다는 천황과 국가에 대한 충심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굳이 영진가가 아닐지라도 ‘칙제’를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작품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とつ國人’이라는 표현을 넣어, 조선인도 천황의 위광을 우러를 수 있음을 감격해야 한다고 읊고 있다.

다음은 『경성신보』에서 칙제를 주제로 모집한 단가의 선정작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1909년 12월 20일 기한으로 투고를 마감하여 이듬해 1월 1일 제300호에 발표되었다.

から人も年立つ今日を祝ふらんしらかねまかふ南山のゆき
한국인들도 해가 바뀐 오늘을 기뻐하리라
백금처럼 빛나는 남산을 덮은 흰 눈
はつ日影のとかにさしぬ南山百濟の深ゆきけふぞとくらむ

편집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조선민보(朝鮮民報)』 편집국장, 『평양매일신보(平壤毎日新聞)』 사장을 역임하는 등 조선 및 만주의 언론계에서 활동한 인물이기도 하다.

새해 첫 햇빛 포근하게 비치니 남산 백제 땅
 깊이 쌓인 이 눈도 오늘은 녹으리라
 からの野につもる白雪踏わけてと、きにけりなけさのはつ春

이국 들녘에 쌓이고 쌓인 흰 눈 헤쳐 나아가
 이렇게 찾아왔네 오늘 아침 새 봄이

선자를 포함하여 총 11인 15수의 단가를 게재했고 ‘삼가 칙제 신년의 눈(新年の雪)’을 읊어 신년사를 갈음한다’는 문장과 함께 경성신보사의 사장을 지낸 미네기시 시게타로(峰岸繁太郎)의 단카와 에도 시대(江戸時代) 국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하카(賀歌)가 상단에 배치되었다.

한일병합이 공포된 이듬해인 1911년의 신년호 역시 대대적으로 칙제 단가를 모집하여 약 40수의 작품을 발표했고, 한시, 하이쿠 등 타 장르의 칙제 문예도 더불어 게재되었다. 선정 작품들은 메이지 천황의 어진영(御眞影)을 중심으로 둘러싸듯 배치되었으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3수는 이하와 같다.

天 慶尙南道 居昌 / ■山はつ子
 雪霜をしのきてかほる梅ヶ枝を月のか、みにかけて見る哉

눈과 서리를 무릅쓰고 피어난 매화 가지를
 달빛을 거울삼아 비추어 보는구나



1911년 1월 1일자 『경성신보』 신년호 1면

9) 1910년의 칙제는 「新年雪」이었다.

地 京城古市町五十四 / 一瀬武内

おく霜に照り添ふ月の白ければかほりや梅のしほりなるらむ

서리 내리고 이에 빛을 더하는 달빛 환하니
향기가 매화꽃을 알리는 길잡이라

人 朝鮮總督府賄方一文字いく方 / 小笠原曉水

御垣守雪打ち拂ふ梅ヶ枝に残りて白き朝月夜かな

궁중의 군사 내린 눈을 털어낸 매화 가지에
희게 빛 남아 있는 새벽녘의 달인가

어진영 바로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미네기시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다.

峰岸繁太郎上

おほ空にかかれる月は寒けれどもはやほころひぬ野路の梅ヶ枝

너른 하늘에 걸려 있는 저 달은 싸늘한데도
봄오리 벌었구나 들길의 매화 가지

『寒月照梅花』라는 칙제 자체의 회화적인 특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합병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전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한반도 통치나 천황 찬미에 경도된 분위기는 수그러든 편이다.

1910년 당시 『경성신보』의 평균 발행부수는 75,000부로, 이는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의 65,232부를 능가하는 수치였다.¹⁰⁾ 따라서 『경성일보』 등에 못지않게 식민지 지배의 현황 및 일본인 사회의 실상 해명에 유효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투고 문예의 성격은 그 구독자인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시각을 유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우타카이하지메, 즉 천황과 신민을 연결하는 근대적 전통으로 재탄생한 황실 행사와 직결된 ‘칙제’와 관련된 문예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도 무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령 『海邊松』을 주제로 모집한 1918년 1월 1일자 『부산일보(釜山日報)』

10) 金泰賢(2011) 『朝鮮における在留日本人社会と日本人経営新聞』 神戸大学大学院文化学研究科社会文化専攻博士論文 p.56

지면의 신년 문예란에는 이하 인용한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공전의 호경기를 맞이한 일본인들의 환희의 감정이 엿보이고 있다.

天 釜山 / 朱雀瑞子

荒磯の巖に根ざす松こそはゆるぎなき世のためしなるらん

거친 바닷가 바위에 뿌리내린 솔이야말로
요동치 않는 세상 보여주는 것이리

地 金海 / 坂口芳子

うちよする波の鼓に濱松の調べあはする御代の春かな

밀어닥치는 파도의 북소리에 갯가 소나무
함께 장단 맞추는 위대한 시대의 봄

仁川 / 菊川泰平

須磨の浦はつ春風に開け初めてみどりの松の色まさり見ゆ

스마 바닷가 첫 봄바람 더불어 새해가 밝아
청청한 소나무의 빛깔 한층 더해라

人 浦項 / 花川緑也

老ひ茂る海邊の松の■■■■(群千鳥?)君がよはひを八千代とぞ鳴く

늙어 우거진 바닷가 소나무의 바다 물떼새
입의 세상 그 날이 영원하라 우짚네

釜山 / 井上義一

あしたづの聲ものどかに聞ゆなり年經し磯の松のこずえに

갈대숲 학의 우는 소리 그곳이 들려오누나
세월 흐른 바닷가 소나무 가지 끝에

晉州 / 西直美

巖うつ波の鼓にあはすなり濱松が枝の千代のしらべは

바위를 치는 파도의 북소리에 장단 맞추네
바닷가 솔가지의 천대 세월의 가락

선정작과 더불어 선외가작으로 다수의 투고작이 실려 있으며, 모집 문예
외에도 「칙제 해변송(勅題海邊松)」이라는 제목으로 에미 스이인(江見水蔭)의

단편 소설이 게재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 점이다. 칙제에 대한 신문사 및 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일례라 할 것이다.

5. 우타카이하지메와 식민지 조선인의 칙제 문예

합병 이듬해인 1911년 1월 19일자 『경성신보』에는 도쿄 전보(東京電報)로 18일 시행된 우타카이하지메의 어제 및 황후, 황태자, 황태자비의 노래와 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선가 5수 가운데 역대 최초로 조선인으로 짐작되는 작자의 작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다.

朝鮮全羅南道 許燮

雪深き百濟の野邊に咲梅もへたてす照す冬の夜の月

눈 깊이 쌓인 백제 땅의 들녘에 피는 매화도
구별 않고 비추는 겨울밤의 달이어

‘백제의 들녘(百濟の野邊)’에까지 고루 비치는 황은을 감사하는 조선인의 상징으로서 그 선정 및 내용에 노골적이라 할 만큼 정치적 의도가 드러나고 있으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신문인 『경성신보』에는 타 작품과 나란히 칙선가(勅撰歌)로서 게재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동월 동일자의 국한문 신문 『매일신보(每日申報)』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御歌會와朝鮮人

宮中에서每年歲首에御歌會를開호실시勅題를豫選發布호아幾萬首를募集호中에서民間의製呈호者로五首를豫選호심이流來의定例인本年는併合後第一回의新年이오勅題는『寒月照梅花』라一視同仁之下에日鮮人을不拘호고御歌를豫選호셨는디全羅南道珍島郡居許炎¹¹⁾은朝鮮人으로써入選호았스니實로無前의大光營을荷호았고陽春이陰崖에至호았더라

11) 『경성신보』에는 ‘許燮’, 『매일신보』에는 ‘許炎’으로 표기되어 있다.

영진이 선정에 대하여 ‘실로 전에 없는 대광영이자 양춘이 음애에 이른’ 것이라는 거창한 찬사는 일본에 있어서의 우타카이하지메와 영진에 함축된 의미를 가늠케 한다. 그러나 이후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垕)이 왕족(王族)의 신분으로 행사에 직접 참석하게 되는 1939년까지 조선인의 노래는 우타카이하지메에 단 한 수도 등장하지 않았다.

무라이 오사무(村井紀, 1999)는 이 최초의 ‘국외 영진’ 선가를 가리켜 한국 병합에 어울리는 의례가의 ‘작위(作為)’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²⁾ 병합 직후의 조선인 선가란 물론 식민지 국민들을 문화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며 피식민자로서 지배층의 국가적 전통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장치는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일회적인 선전에 머무르고 말았다.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만요슈(万葉集)』로부터의 역사로 간주된 ‘천황으로부터 모든 신민에 이르기까지’는 결국 일본인에 한하는 것이었고, 식민자 스스로가 피식민지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 의식을 극복하는 데 실패한 내지연장주의의 이면과 동화정책의 실체를 노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타카이하지메와 영진의 관계에서 파생된 칙제 문에는 그 확장성과 포용력에 한계가 없어,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접어들면 『매일신보』에서 칙제를 신년 시제로 삼아 단가가 아닌 한시를 모집¹³⁾하는 등 한문에 익숙한 조선인을 대상으로 칙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시체제에서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皇民化) 정책 및 내선일체 사상의 주입 시책과 결부될 것이며, 외가 특유의 국가적 전통 및 우타카이하지메의 견고한 의례적 장벽을 허무는 대신 보다 접근하기 수월한 대체재로서 제공되어 그에 준하는 성과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단, 매일신보 내의 칙제 시제 현상이 5차례에 불과하며 그것도 1940년 전후로 집중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일제강점초기에 한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병합 직후의 조선인 선가를 제외하면 칙제 문예와 피식민자 포섭의 관계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2) 村井紀(1999) 「歌会始め—天皇制の創出」 『批評空間』2期(20) 太田出版 pp.249-250

13) 한길로(2017)에 의하면 『매일신보』의 신년 칙제 한시 현상은 총 5회 중 4회가 일제강점기 말, 즉 1937년, 1939년, 1940년, 1945년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6. 맺음말을 대신하여

우타카이하지메 및 관련 문예는 그 어용문학적 성격은 물론 근대 초기 오우 타도코로의 구파 가인을 향한 멸시 및 와카 혁신 운동의 그늘에 가려 근현대 일본문학사에서 소외되었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천황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면면히 계승된 와카와 국가주의의 교묘한 유착이 발하는 후광은 거대한 것이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그 정치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우타카이하지메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문화 의례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새로이 등장한 근대적 미디어인 신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각 신문에서는 가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어제를 공개하고 해당년도의 칙제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칙제 문예를 게재하거나 모집하는 등 이 의례를 보다 광범위한 범국민적 행사로 확장시켜 나갔다. 최종적으로 극소수의 선가만이 공개되는 정식 영진이 아니더라도 절대 다수가 칙제 문예를 창작 발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특히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활발한 신문 투고를 통하여 영진을 대신하고, 이를 통하여 거주지와 무관하게 칙제를 받드는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자각을 다졌다. 또한 와카로 한정된 우타카이하지메의 제한을 넘어 일본어 및 일본의 고전 시가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의 지식인 계급을 포섭하기 위하여 이용된 것도 신문의 칙제 문예 현상 모집이었다. 신문이라는 매체는 근대 천황제의 창출에 수반한 우타카이하지메의 변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물론, 내지와 외지를 불문하고 ‘칙제’라는 테마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천황에게 시가를 영진하는 ‘신민’을 양성해 나갔던 것이다.

<参考文献>

金泰賢(2011) 『朝鮮における在留日本人社会と日本人経営新聞』 神戸大学大学院文化科学研究科社会文化専攻博士論文 p.56

한길로(2017) 『일제 말 『매일신보』 소재 신년 현상 한시 연구: 칙제(勅題)를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55 열상고전연구회 pp.235-237
- 青柳隆志(2002) 『明治初年の歌会始—和歌御会始から近代歌会始への推移』 『和歌文学研究』85 和歌文学会 pp.3-9
- 高崎正風述・遠山稲子編(1912) 『歌ものがたり』 東京社 p.79
- 中澤伸弘(2002) 『明治初期の和歌史の一考察』 『皇学館論叢』35(2) 皇学館大学人文学会 pp.35-37
- 松澤俊二(2008) 『明治天皇「御製(ぎよせい)」のポリティクス』 『日本近代文学』79 日本近代文学会 pp.60-61
- 村井紀(1999) 『歌会始め—天皇制の創出』 『批評空間』2期(20) 太田出版 pp.249-250
- 明治聖徳記念学会企画・編集委員会(2006) 『翻刻埋木廼花(高崎正風編)』 『明治聖徳記念学会紀要』43 錦正社 pp.405-441

접 수 일: 2019년 6월 30일

심사완료: 2019년 7월 28일

게재결정: 2019년 7월 30일

<Abstract>

A Study on Waka Poetry Contest in Newspapers

–Focusing on the Theme for the *Utakai Hajime*–

Each January, Japan's imperial court hosts the New Year's Poetry Contest for members of the imperial family and some carefully chosen private citizens to read Waka poems they had composed on a preannounced theme. Every year, more than 20,000 Tanka are received from private citizens.

This ceremony, known as the *Utakai Hajime*(Imperial New Year's Poetry Reading), is the modern version of a court culture supposedly dating back to the mid-Kamakura period. It is a traditional event where the imperial court interacts with the general public through Waka.

From 1874, poems written by the general public were admitted for consideration for the first time, and the *Utakai Hajime* ceremony which had previously been conducted exclusively within the court thus became open to the common people. In 1879, of the poems submitted by the general public, those considered to be of special value were recited at the *Utakai Hajime*, along with poems written by the imperial family.

Since 1882, all poems recited at the ceremony including those written by the Emperor and the imperial family have been published in newspapers and since 1884 they have been also published in the a government organ.

Such changes reflect efforts to advertise the modern emperor's presence and imperial authority to the public and build a nation of subjects who would partake in the tradition of Waka composition passed on for over a millennium. In the process, Waka was the 'Japanese national identity', has been disseminated and strengthened through various kinds of the culture media. Ceremonies such as the *Utakai Hajime* had served to establish the emperor as a symbol of continuity and cohesion.

Especially the print media like newspapers and magazines had played a role in both perpetuating and institutionalizing national culture. This article first chronicles the history of the *Utakai Hajime* and then,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Literature and print media through analysing a role of the print media as a constructor of national identities, particularly focused on newspapers.